

북한개발소식

11

2020 November

통권 181호

| 이달의 주제 |

북한 선교와 조선족 교회



북한 선교와 조선족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November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 선교와 조선족 교회

01

권두칼럼
북한 선교와 조선족 교회

08

칼럼 1·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北中 접경지역에서의
조선족교회의 역할



12

칼럼 2· 유관지
조선족교회에게 호소합니다.

18

칼럼 3· 신동욱
조선족 교회, 통일선교의 교두보



24

인터뷰
북한 선교, 우리 함께 합시다.



31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20)



34

북한 뉴스



38서평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세와 기도

40

북한 기도 제목



글을 시작하며

중국의 동북 3성은 북한의 북쪽 국경의 대부분을 접하는 지역으로써 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 대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면서 북한 선교의 주요 현장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과의 왕래는 지리적으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 동포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조선족 신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신분의 선교사가 연고 없는 국경지역에서 활동하고 북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간 많은 조선족 동포 사역자들이 이름도 없이 실제적으로 북한 선교에 힘써왔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국적을 초월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해 함께 힘쓰는 모습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실패와 오해,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기존의 세계화 추세가 한 풀 꺾일 것이라는 예측 속에 선교사

파송 및 장기 거주도 제약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주에 문제가 없고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현장 출신 사역자를 통한 선교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북한 선교 현장에서 조선족 동포 사역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시행착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최근 선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이번 글에서는 조선족과 조선족 교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북한선교를 위한 협력의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간략한 조선족의 역사

조선족 이민사는 크게 네 국면으로 나뉜다.¹ 첫 번째는 가뭄이나 홍수, 흉년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난처성격의 이주로 1800년대 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 초기(1910년대)로써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지사나 의병장들, 그

1 김성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조선족 교회”, 기독교사상 41(4), 1997.04, 18-28.

리고 수탈을 피해 이주한 농민들이 이주하였다. 세 번째는 일본의 꺾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이민자들이다.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수십 여 가구가 함께 이전하여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북간도 노회록에 따르면 이러한 이주처가 약 50여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일본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적인 이주이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주 형태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조선족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 동북 3성 지역은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교회는 그러한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었다.² 그렇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민족주의 항일세력은 일제의 토벌과 공산주의자들의 대두로 소멸되어갔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투쟁에 중심축이 되었으며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여 항일유격대 활동을 하였다. 조선족들은 척박한 만주 땅을 개척하고 항일 투쟁 및 국공 내전(1946-1949) 당시 공산당을 도왔기 때문에 조선족은 자치주로서 인정받고 언어와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었다.³ 광복 전 동북지역 전체 조선족 인구는 약 216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제의 패망과 광복은 조선족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동북지역 거주 조선족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기보다는 조선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광복 이후 많은 조선족들이 다시 귀향길에 올랐다. 이때 돌아간 조선족 인구가 대략 70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에도 많은 수의 조선족이 입북했다. 북한도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조선족들의 이주를 받았다. 60년대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중국보다 오히려 좋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는 조선족들도 있었다.⁴ 조선족의 입북에 대해 중국 정부도 이들의 국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암묵적으로 배려하였다.

1990년대 초 한중 수교와 중국의 전면적 개방, 그리고 중국 내의 이주 완화 조치를 통하여 조선족들의 대규모 이동이 다시금 나타났다. 국내적으로도 동북 지역 외 지역으로, 그리고 국외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수십만의 조선족들이 이동하였다.

조선족 사회에는 일찍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다. 특히 교회는 항일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일제가 만주 지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교회는 토벌 대상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에는 조선인 사회의 주도권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회는 큰 환란을 당했다. 일본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한 이후에 조선족 교회는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위축된 분위기 속에 명맥을 어렵게 유지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화대혁명을 거쳐 온건하고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되면서 조선족 교회도 점차 재건되었다. 80년대 개

방 이후에는 교포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이 시작되고 90년대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한민족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하지만 그 유사점만큼이나 차이도 분명하다. 먼저 생각할 점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데 익숙하지만 다민족 사회인 중국에 자리 잡은 조선족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페이샤오통의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을 바탕으로 둔 민족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수민족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다름이 '중화민족'이라는 '우리'로서 응집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선족들은 중국의 정치, 경제, 인문환경에 부합하지만 그 안에서 조선족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즉 이주과정에 대한 기억, 동북의 개척과 항일 및 혁명에 대한 자부심, 한족에 대한 우월의식(혹은 피해의식), 사회주의 의식형태와 생활방식, 언어 및 의식주에서의 혼합, 중국 민족정책에 대한 긍정 등을 개별요소로 조선족 정체성을 구성해왔다.⁵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조선족의 기억으로써의 “조선”이 아닌 새로운 실체인 “한국”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발생하였다.

그간 같은 민족, 다른 국적, 독특한 문화의 조

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없는 교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왔다. 한국 성도 입장에서 조선족을 일종의 교포로 인식하여 비록 사는 곳은 타국이지만 그 마음은 고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조선족의 이야기는 다르다. 민족은 조선이지만 국적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민족과 국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단일민족국가로서 한국은 민족과 나라를 동일시하는 생각이 일반화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이 무의식적으로 조선족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족은 자신을 중국 사람으로 인식하고, 중국 일반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익숙하며, 중국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에서 온 동포의 무리한 기대에 어색함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써 고유의 문화와 언어 등을 잘 보존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인으로써 교육을 받아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북 공정 등과 관련해서 조선족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다. 한국 여행자들이 만주도 우리 땅이니 되찾아야 한다는 식의 중국을 긴장시킬만한 발언을 하고 돌아가면 당국의 압박은 조선족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관련해서도 조선족들은 중공군으로 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조선족들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2 인병국, 「조선족 교회와 중국 선교」, 서울:에스라서원, 1997, 25-35.

3 임희모, “조선족 선교의 과제와 전망”, 선교신학 9, 2004.11, 1-20.

4 김광희, “1949~1962년 중국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민족정체성”, 한국학연구 50, 2018.08, 7-27.

5 최승현,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2016,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16.12, 48-49.

기도 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여러 할 말이 있겠지만 조선족과의 협력에서 그러한 논쟁은 자칫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또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모습도 문제가 된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적이나 경제력의 차이를 빌미로 동정적이거나 심한 경우 비하적인 태도로 조선족을 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한국인들은 조선족 앞에서 중국을 깎아내리거나 한국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거리낌 없이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통 간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의 시행착오와 최근의 난관

한국 교회와 조선족 교회는 협력하며 북한 사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조선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로 인한 오해,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급한 사역 진행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 한국 교회의 조선족 선교과정의 시행착오를 다시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간 오랜 냉전 속에 가깝지만 열리지 않았던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되자 한국 교회는 열정적으로 선교에 나섰고 그 중 동포인 조선족 교회를

다방면으로 도왔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사람들이 강을 넘기 시작하면서 중국 선교는 북한 선교와 연결되어 더욱 불이 붙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이 좋은 결과만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이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재정 후원 및 파생된 문제가 심각했다. 선교 초기 한국 교회는 마치 빈자를 구제하듯이 물량적 지원공세를 조선족 교회에 쏟아 부었고 이는 조선족 교회에 역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궁핍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물량공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자랑할 수 있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렇게 추진된 사역은 장기적으로는 현지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조선족 동포 사역자들도 갑작스럽게 밀려온 돈의 유혹에 중심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다. 충분한 이해와 소통 없이 돈 문제가 얽히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여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 및 단체 사이의 과도한 경쟁적 사역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 교회의 진출과는 별개로 한국과의 교류는 조선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조선족 교회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먼저 인구의 이동 문제이다.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대규모로 고향을 떠나 국내적으로는 대도시로, 국외로는 한국으로 이동했다. 기존 연변 지역 조선족 인구는 약 180만여 명 수준이었으나 그 중 100만여 명이 일자리를 찾

아 이동하면서 지역 내 조선족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했다.⁶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연변 지역 조선족 인구는 약 75만여 명인데 자치주 총 인구 210만여 명의 약 36% 수준이며 2010년 82만여 명, 2013년 79만 9천여 명에 이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⁷ 중국의 자치주 지정 기준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의 인구 구성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추세대로라면 수십 년 내에 자치주 자체가 강제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조선족 사회가 고유의 문화, 말, 교육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된다. 특히 조선족 교회들에게는 이러한 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회중 수 감소와 이로 인한 교회 존립 위협으로 다가왔다.

중국 당국의 강화된 종교 탄압 정책도 큰 어려움이다. 중국의 교회에 대한 박해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 1일부터 ‘신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를 막론하고 각종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가정교회는 직접적으로 교회 폐쇄 및 강제 해산, 목회자 체포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삼자교회의 경우도 예배당에 감시카메라 설치, 활동에 대한 정기적 보고, 오성홍기 계양 및 국가 부르기 등 다양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해외 신학교육이나 성경 및 기독교 자료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반의 통제도 강화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이나 사회복지 혜택 박탈 등으로 위협하며 교

회 모임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조선족 교회도 이러한 박해의 파장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중국 일반 교회들이 받는 박해보다 더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로 조선족 교회는 한국교회와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단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졌다. 이는 단순히 한국교회로부터 받는 지원의 중단 뿐 아니라 한국에서 발간된 각종 신앙 도서나 자료 등의 사용까지 규제하는 전방위적인 제약이다. 기독교의 중국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최근 당국의 입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족 교회가 그간 힘써왔던 탈북자 구제 및 북한 선교를 위한 노력도 당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 만큼 선교적 측면에서도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국경지역의 경우 시골지역 조선족 인구 감소로 인한 출석 교인 감소와 더불어 당국이 탈북자 구제 등 교회의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교인수 감소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교회 수가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보이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과거에는 탈북자들 사이에 강을 건너서 십자가 종탑만 보고 가면 산다는 이야기가 나뉘지고 또 실제로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영과 육이 모두 생명을 얻는 역사가 다수 있었지만, 이제는 강을 건너도 교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 조선족 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

한인 선교사의 거취 문제도 여전한 문제이다. 사드 사태 이후로 이어진 선교사 추방 행렬은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완화되길 기대하지

6 연합뉴스, “中 조선족 인구 급감…연변 조선족 각급학교 줄 줄이 문닫아”, 2016.08.03

7 매일경제, “中 연변자치주 조선족 계속 감소…75만7천명, 총인구의 36%”, 2018.09.14

만 현 중국 당국의 입장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기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과 거주 관련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선교사의 현장 활동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 선교사의 추방은 동역하던 조선족 사역자에게도 심대한 타격이며 그간 진행해온 선교 사역의 유지도 어려워진다.

긴 안목으로 신뢰를 형성하자

최근 경향이나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전과 같은 대규모의 협력이나 사역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착오로부터 배운 교훈과 최근 변화 속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키워드로 긴 안목과 신뢰 구축을 감히 꼽아본다.

먼저 신뢰 구축이다. 조선족 사역자와 한국 선교사, 그리고 사역단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충분히 쌓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간 북한 선교 현장은 신뢰보다는 불신이 익숙했다. 조선족 사역자는 갑작스럽게 사역을 중단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 일쑤인 한국 선교사와 단체에 대한 쓴 뿌리가 있다. 또 한국에서는 도통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조선족 사역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 근본적으로 제약이 많은 북한 선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검증과 신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안적인 이유로 조선족 사역자에게 선교사나 사역단체가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기 어렵고,

실제로 모르는 것이 사역 전반과 조선족 사역자의 안전에도 유익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약사항까지 고려한다면 신뢰형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과 경험의 양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축에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 즉 가시적인 성과가 단시일 내에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사와 사역 단체는 당장의 사역을 위해 여러 그럴듯한 사람을 찾고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아직은 미약하더라도 진정으로 소명감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찾고, 또 서로가 함께 윈윈(win-win)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는 구상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규모 있는 사역을 전개하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을 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배워가고 훈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의미 있게 여기는 가운데 사역의 성취 뿐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데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북한 선교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단시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후원 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투입하게 되고, 당연히 여러 증빙과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현장 입장에서는 받은 지원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 무리해서 사역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역으로 실제 하지 않은 사역을 억지 증거를 만들어 제시하는 식의 역효과를 낳게 된다. 즉 선교사나 현지 사역자에게 협력 및 후원의 조건으로 무리한 목표나 기준을 요구하게 되면 역효과를 낳기 쉽다. 또 과도한 후원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사역을 중도에 중단하게 되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사람을 세우고 신뢰를 형성하는 일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선교를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가 선교 현장과 사역에 대해 배우려는 마음과 함께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사역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면 분명 실제적인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 구축을 통해 조선족 사역자를 단순한 사역의 파트너가 아닌 우리가 세운 선교사 중 하나로 인정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언급만이 아닌 조선족 사역자와 한인 선교사도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파송 선교사는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것이 중국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적인 관점에서도 현지의 일꾼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하다.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다

조선족이 가진 선교적 잠재력은 막대하다. 첫째로 조선족 교회는 오랜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왔다. 둘째로 조선족들은 북한과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이주와 왕래가 많이 이루어져온 만큼 북한 사람들과 친숙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조선족 교회의 사명감은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족 성도들에게도 북한 선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선교의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친척이나 가족,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조선족 사역자들이 민족 복음화라는 사명을 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에 힘써왔다. 중국과 북한 양 편에서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도 북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파도처럼 밀려오는 박해와 난관들은 앞으로의 북한 선교 전망을 어둡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및 선교단체,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모두 서로에 대해 배우고 사역의 노하우를 채득할 수 있었다. 또 과거 여건이 좋을 때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상당부분 옥석가리기가 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변화에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하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북한이 국경을 닫고 있지만, 때가 되면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릴 것이고 북중 국경은 또 다시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계속된 한국 선교사 추방과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우려되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조선족 선교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서로가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고 함께 민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하고 기대한다. 

北中 접경지역에서의 조선족교회의 역할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교의 현장 사역은 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다. 90년대 초반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왔다. 하나님은 접경지역에 있는 조선족교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살기 위해 찾아 온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식량과 재정을 지원하면서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북한선교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조선족교회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동체로 전문적으로 북한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접경지역에서 사역하는 조선족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된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접경지역에 있는 조선족 교회와 연합해서 북한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선족 교회라고 모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탈북한 북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 사역하는 조선족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이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수의 조선족 교회에게 북한 선교의 부르심을 주셔서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위협을 감내하면서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중 접경 경계가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김정일 정권 때보다 더욱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해마다 다르게 견고해지는 북한 철책선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통신보안 역시 더욱 강화돼서 북한 접경지역에서 중국통신망을 이용해서 연락할 때 이전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국경 통제는 결과적으로 탈북자 수를 눈에 띄게 줄어든게 만들었다. 특히 두만강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 조선족 교회 사역자는 몇 년 동안

탈북자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일부 탈북자들이 백두산 기슭으로 넘어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 피살 사건이후로 중국 정부는 접경지역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중국 자국민 보호라고 하지만 속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를 완벽하게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북중 동시적인 국경 통제 강화에 북한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대부분의 교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무역량이 많아지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사람 유동인구도 많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중에는 정부나 기업소의 공식 인사들도 있지만, 친척 방문자들도 상당수이다. 접경지역 북한 선교의 시작은 친척 방문하는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친척 방문자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초청한 조선족 친척집으로 이동한다. 조선족 친척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초청한 친척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방문자들의 여정이 확연히 달라진다. 어떤 방문자는 친척이 부유하게 살아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편안히 쉬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어떤 방문자는 친척이 넉넉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보니 벌금을 감

수하더라도 불법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어떤 방문자는 친척이 조선족 교회 성도로 방문한 북한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다. 접경지역에서 방문자들을 만나보면 친척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선족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친척 방문으로 중국에 나왔지만 친척을 만나지 못하고 일도 구하지 못해서 국경지역을 떠도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희망을 잃고 낙심해서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희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그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다.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적당한 위치에 그물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다.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나오면 대부분 일정하게 이동하는 패턴이 있다. 이런 장소에 미리 사람들을 세워 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조선족의 국적과 언어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오래된 형제의 나라로 서로 우호적이다. 또한 조선족은 북한 사람들과 말투가 유사하다.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지 혹은 스파이는 아닌지

를 일차적으로 점검해주는 역할을 한다.

접경지역에 북한 사람을 접촉하면 가장 먼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 형성이 우선이다.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 때문에 아무도 쉽게 믿지 않는다. 의심과 거짓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선족 사역자가 접경지역에서 북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해산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접경지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접촉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후 수반되는 일이 많아진다. 어디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도울 수 있는 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은 법보다 돈이 우선된다. 북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고, 돈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없는 일도 상황에 따라 일이 안 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물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어떤 것이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 역시 조선족 교회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중에 하나다.

북한 사람 모두 여권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위 ‘신분’이 나쁘면 돈이 있어도 중국 방문은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조선

족 친척을 가진 북한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신분이 좋지 않아서 아무리 중국으로 초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조선족이 반대로 직접 북한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의 북한 방문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복잡한 절차와 긴 행정처리 시간, 재정적 희생이 따른다. 이러한 난관을 무릅쓰고 조선족 성도가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이 뒤따른다. 복음을 전하다 발각되면 간첩죄 혹은 국가전복죄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는 조선족 성도들이 있다. 작년에 북한에 다녀온 한 조선족 성도는 “살 만큼 살았는데 뭐가 무섭겠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북한을 다녀오셨다. 척박한 북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러한 사역은 오직 조선족 사역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브로커를 통해 인신매매로 팔려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 지역에 사는 중국 한족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 하지만 법적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신분증이 없다보니 이동이 제한되고 의료혜택도 볼 수 없다. 언제라도 북송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다. 중국 가정에서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 밤마다 북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 함부로 떠날 수도 없다. 이러한 여성 탈북자들을 돌보는 것도 조선족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다. 주기적으로 여성들을 심방하다보면 어떤 분은 짧은 시간동안 설 새 없이 말을 해서 어느 때는 준비한 말씀도 다 전해지 못하고 올 때가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방할 때가 유일하게 조선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때론 나이가 지긋한 조선족 권사님과 함께 심방을 가면 마치 어머니 같아서 아무 말 없이 껴안고 울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조선족 교회가 유일한 쉼터가 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접촉해서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 간혹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급하지 않은 일은 서신을 보내오지만 분초를 다투는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 접경지역의 통신 보안과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전화 연락은 한정한 시간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는 언제 연락 올지 모르니 밤에도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고 잠이 들곤 한다.

북한 선교의 어려움은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직간접적인 압박과 두려움에 시달린다. 하루는 조선족 사역자와 함께 접경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다. 한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조선족 사역자가 낮은 목소리로 “OO님,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만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되새겨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 왔다. 중국 정부와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위협을 항상

인식하고 사역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역 환경은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아닐 수 없다. 접경지역이라는 최전선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역을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은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충분히 공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접경지역 조선족 교회가 북한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때론 조선족교회가 없으면 과연 중국에서 접경지역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다. 조선족교회는 한국교회와 북한교회를 연결해 주는 보이지 않는 교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조선족 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족 교회도 북한 선교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는 중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전체적인 선교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안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와의 긴밀한 연합을 통해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선교 주체는 조선족 교회도 아니고 한국 교회도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국적을 초월해서 조선족교회와 한국교회를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다. 

조선족교회에게 호소합니다.

유 관 지 (NKC연구원 원장, 월간 웹진 「중국을 주께로」 발행인)

들어가며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운동이 바른 방향으로, 또 효과적으로 행진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북한개발소식」이 11월의 주제를 “북한선교와 조선족”으로 선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개발소식」에는 매호, 제일 앞에 그 달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권두칼럼’이 실립니다. 한국오픈도어 명의로 발표되는 이 글의 충실한 내용을 통해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 편의 글이 이어지는데, 모르는 해도 이번 호에는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북한선교에 있어서 조선족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자는 방향을 바꿔서, 조선족교회를 향해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족교회라고 함은 조선족교회 목회자와 교인을 포함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북한개발소식」은 국내에 배포되는

월간지인데 조선족교회를 대상으로 하다니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당한 말이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잠시 멈춰있지만, 국내교회와 조선족교회와의 교류는 의외로 활발합니다. 또 인터넷을 비롯하여 여러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전달에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국내에도 조선족교회가 여럿 설립되어 있고, 의외로 많은 숫자의 조선족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좋은 대상이 됩니다.

‘조선족교회의 정의’,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정서와 유대감

먼저 ‘조선족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듣고, 또 쓰는데 사실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일원인데 ‘한국교회’의 정의도 사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조선족교회를 ‘중국에서, 조선족 교인들이 모여, 조선인이라는 정서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조선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하고 싶

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국문학은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한국어로, 한국적인 사유(思惟)를, 문학작품으로 창작한 것을 말하는데, 이 정의에서 각 요소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보시오’라는 토론 과제를 내 준 일이 있었습니다. 토론 끝에, 제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문학작품으로 창작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사유’이고, 빠져도 좋은 것은 ‘한국 땅에서’이고, ‘한국인이’와 ‘한국어로’는 토론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하였더니, 교수는 자기가 바라는 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을 조선족교회에 대한 정의에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는’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족’이라는 말은 우리 동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조선족교회가 중국 외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러시아 로스토프라는 곳에 고려인교회를 여럿 세웠는데, 그 도시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들을 위한 교회도 하나 세웠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현지를 순방하곤 했는데, 현지에 파송한 선교사가 “고려인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통역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답답한데, 조선족교회의 예배는 우리 말로 드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라고 하더군요.

‘예배를 드리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

선인이라는 정서와 유대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정서와 유대감은 ‘조선족’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의 기독교인이라는 정서와 유대감에는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슬퍼하고, 북한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많은, 아니 대부분의 북한동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을 안타까워하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아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라는 마음을 나누어 갖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뿌리를 기억하십시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북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조선족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13년에 설립되었는데 중국의 공산화 이후 문을 닫았다가 개혁개방에 따라 1979년 7월 5일에 복당(復堂)된 서탑교회와 1975년에 ‘국자가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1981년 9월 20일에 복당된 연길교회, 그리고



〈심양의 서탑교회 신예배당(좌)과 구예배당(우)〉

같은 경우인 교회 두었, 또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를 이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조선족교회들이 개혁개혁 이후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족교회의 뿌리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 이후에 내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선족교회의 뿌리는 1800년대 후반부터 중국 동북지역(이하 ‘동북’) 여러 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 때는 ‘조선족교회’가 아니고 ‘조선인교회’였습니다. ‘조선족’이라는 말은 1950년 전후해서 쓰이기 시작하더니 1952년 9월 3일에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처음에는 ‘자치구’)가 설립되어 보편화되었습니다.

최초로 설립된 조선인교회는 1898년에 지안

(集安)에 설립된 이양자교회(裡楊子教會)일 것입니다. 이양자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지금 넷가에 “耶蘇教初立 1898 도선인 ”이라고 새겨진 자연석 비석(사진)이 서 있습니다. ‘도선’은 ‘조선’의 평안도식 방언입니다. 이것은 이양자교회의 뿌리가 평안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북으로 이주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선인교회들도 늘어나는데, 그야말로 우후죽순과 같았습니다. 장로교의 1938년 주소록을 보면 그곳에 봉천교회(38)·남만교회(26)·북만교회(28)·동만교회(74), 네 개의 노회가 있었습니다. 앞의 노회 이름 옆의 숫자는 그 노회에 속한 교회들의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1938년 이후에는 영구교회와 단동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감리교도 동북에 만주선교연회를 두었습니다. 동북에는 성결교회도 여럿 있었고, 침례교회(당시 이름 동아기독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칭(汪淸)현의 한 부락을 방문했다가 그 부락 전체가 과거에 침례교 공동체였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조선족교회들은 이 교회들, 다시 말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이전 동북에 있었던 조선인교회들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인교회들은 국내의 교회들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에 있었던 장로교의 노회들 가운데는 평안도의 산서노회, 의산노회, 용천노회 등을 모체로 하고 있는 노회들도 있습니다. 동북의 노회들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동만교회는 함경노회(뒤에 함북노회·함

남노회·함중노회로 분립됨)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조선족교회들은 뜨거운 신앙과 왕성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는 중국의 한 유력인사로부터 “중국의 소수민족 소개 책자에는 조선족이 수농(水農, 논농사)·족구(足球, 축구)·선가능무(善歌能舞, 노래 좋아하고 춤에 능함)의 민족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부지런하고, 교육열 높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열심인 민족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열심 있는 신앙은 바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그토록 감동적이었던 북한지역 교회들의 신앙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롬 11:18)라고 하였는데 북한지역 교회들의 뜨거움이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에서 꽃피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교회들이 북한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뿌리 살리기 운동이고, 회복(재건)운동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족교회들은 이미 북한선교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단 이후 북녘교회의 역사를 ①전통교회 존속기(1945년-1950년) ②지상교회 부재기(1950년-1972년) ③국가교회 출현기(1972년-현재) ④지하교회 활성화기(1998년-현재)로 분류하고 있는데(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기회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1998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하교회 활성화에는 조선족교회의 기여가 매우 큼니다.

그 이전에도 전통교회 교인들,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 참된 신앙행위와 공동체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보통 ‘그루터기교회’라고 부르는데 소규모였고 산발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식량난이 발생해서 많은 북한주민들이 살길을 찾아 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족교회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강을 건너거든 빨간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건물을 찾아가라’는 것이 탈북민들의 숙지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교회를 통해 복음과 만나게 되었고 북한으로 돌아온 그들에 의해 지하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에 오면 조사기관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많이 인도했는데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예배가 처음이라 인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본문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바로 설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교자, 순서담당자, 반주자를 비롯해서 같이 갔던 분들이 회중석에 흩어져서 본문을 찾아주고서야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찾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었는데, 조선족교회를 거쳐 온 분들은 예외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여러분, 북한에서는 이런 예배 못 드렸지요?” 묻고, 그러면 고개를 끄떡이는데, 한 번은 “몇 번 드렸어요” 하는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양자 교회 터에 새겨진 비석〉

“아니, 누가 인도했습니까?” 했더니 “중국에서 장사하러 온 분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림 없이 조선족교회 신자였을 것입니다.

조선족교회가 이와같이 분단 이후 북녘교회의 역사에서 ‘지하교회 활성화기’라는 새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창바이(長白)교회 한충렬(韓忠烈) 목사님을 추모하며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충성스럽고 열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2016년 4월 30일에 피살체로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 한 목사님이 살해당한 이유가 북한선교 활동을 때문이라는 것을 거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창바이조선족자치현이 고향인 한 목사님은 1991년에 길림공업대학 화학과를 나온 뒤 1993년에 고향에 교회를 세워 피살될 때까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중국 중남신학원을 2001년에 졸업한 뒤 2005년 바이산(白山)시 양회(兩會)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고 한충렬 목사의 영정〉

그는 은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북한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과 교제가 깊었는데 저도 창바이 현지에서, 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의 지혜로움과 겸손함에 머리를 숙이곤 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살해범은 아직도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일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창바이현 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이었고, 바이산시 기독교 양회 부주석이었으며 창바이현 정치인민협상위원회 위원인 중진인사였습니다.

창바이교회에서 드러진 한 목사님의 장례식 모습(사진)을 보니까 시신을 관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교인들이 보게 했는데 머리에 모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현지를 다녀온 분으로부터 두개골이 너무 비참하게 파괴되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책자와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감리교신학대학에서도 공부했는데 감리교신학대학이나, 그와 관계가 깊었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나, 아니면 용인에 있는 순교자기념관에 그를 추모하는 순교기념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족교회가 아니고 국내교회에 호소하는 말이 되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남한교회에 영향력 있는 통일선교 단체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통일포럼이 있습니다. 통일선

교 전문가들의 모임인 이 단체는 매월 정기모임을 열어 통일선교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남북협력”이었고, 강사는 통일부에서 오래 수고하고 지금은 선양하나재단 한국대표로 일하고 있는 양창석 박사님이었습니다. 양 박사는 코로나19, 남북관계의 불협화음 등 최근 북한선교 분야에 쏠리고 있는 악재들을 나열하면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는 통일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 중국 당국에 의해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많은 숫자가 추방을 당한 점도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박사는 이어서 “그로 인한 공백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발표 후의 보충 설명에서 양 박사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조선족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에 이어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로부터 “북한선교와 조선족”을 주제로 한 원고를 청탁 받고 ‘아, 북한선교에서 조선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가고 있구나!’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식은 조선족교회에서 먼저 강해져야 합니다. 조선족교회는 북한선교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혈맹(血盟)’임을 강조하는 사이이고, 현지 방문과 북한주민들과의 접촉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기독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체험을 통해 몸으로 얻은 지혜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교회의 형편은 녹록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종교사무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의 문화대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났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이기는 하지만 소수민족우대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요즘은 소수민족교육기관에서 그 민족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선인교회는 한국교회의 가지들이었다면, 조선족교회는 엄연한 중국교회인데 이 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선교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행해지는 선교가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간곡한 부락을 드립니다.

‘조선족교회여, 북한선교에 더욱 힘쓰시며 앞장 서 주십시오!’ 🙏

조선족 교회, 통일선교의 교두보

신 동 욱 (세계선교신학원 실천신학 교수)

지금 이 시대를 통일시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민족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다. 특별히 중국 조선족은 남과 북이 하루 속히 평화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과 북의 통일 전(前)과정에서 조선족 교회의 북한선교가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조선족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조선족 교회의 상황 그리고 조선족 교회의 북한선교는 어떠한가? 본 글은 이와 같은 주제들에 관해 논해보려고 한다.

1. 조선족의 정체성

한반도에 한민족이 거주한 역사는 적어도 5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한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한민족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 동북

삼성으로 이주하였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조선족이 되었는가? 조선족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1) 한민족의 이민

한민족의 만주 이민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883년, 청나라 정부는 조선 정부와 “奉天如(봉천여) 변민교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인이 중국 동북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¹ 그 결과, 1909년 중국 동북지역의 한민족 이민은 184,867명에 달했다.²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이후 혹독한 강압 통치를 피하여 많은 한인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결과 이 지역에 많은 한인촌이 건설되었다. 동시에 많은 애국지사와 반일의병들 역시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했

1 이승률, 『동북아 시대와 조선족』, 110.

2 朝鮮族簡史 編纂組, 『朝鮮族簡史』(延吉: 延邊人民出版社, 1986), 4-8; 이승률, 『동북아 시대와 조선족』, 110 재인용.



〈청산리 대첩 (민족기록화)〉

다.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1915년 중국의 동북 지역에 거주했던 한민족이 18만여 명이었는데, 1919년에는 무려 43만여 명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민자는 부단히 증가하여 1925년에는 53만여 명, 1930년에는 60만여 명에 달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동북사변”을 일으켜 중국의 동북지역을 강점한 일본은 이 지역을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생산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한민족을 만주로 강제 이민을 시켰다. 1996년 일본 明石書房(명석서방)에서 출판한 『조선족 역사, 생활, 문화, 민족교육』에 의하면, 1945년에 이르러 동북지역에 총 2,163,115명 한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³

2) 만주에서의 한인 독립운동

1905년 을사늑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

탈당했고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경찰권과 사법권을 빼앗겼다. 조선의 모든 국가 기관이 와해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젊은 세대의 교육과 국민 계몽에 앞장섰다. 그 결과, 기독교인이 다수 포함된 항일민족운동가들이 1910년을 전후하여 서북 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곳들을 독립운동기지로 삼았다.⁴

현재 중국 조선족들은 항일독립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으며, 많은 조선족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라 할 수 있다.

3) 중국 공민으로의 전환

일제가 항복하고 난 후,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한인들은 대거 중국공산당 군대에 입대하여 중국공산당의 해방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희생을 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

3 손춘일, 『만주국시기 조선 개척민 연구』(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3),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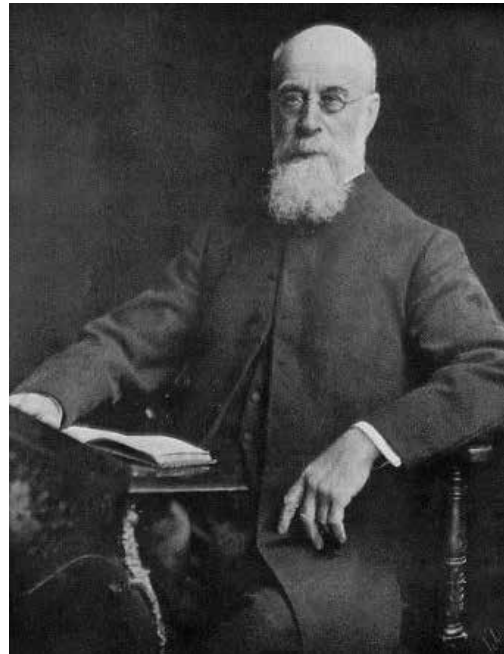
4 尹炳奭, 朴敏泳, “北間島에서의 韓國獨立運動,” 52.

일한 후, 한인들의 이주 역사와 중국 해방전쟁에서의 공로를 고려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중국에서 한인을 한인, 조선인, 조선 민족, 고려인 등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인민 정부가 탄생한 이후, 중국 국적을 가진 한인을 조선족이라 명명하였고, 이로써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조선족이란 누구인가? 이렇게 비유해 보자. 집이 너무 가난했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이웃 동네로 입양 보냈다. 입양 간 자식은 커서 그를 낳아 기른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고 따로 살기에 가슴이 아팠다. 자식은 엄마 아빠 관계를 회복하고, 한 집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남과 북의 분단을 부부의 이혼 상황으로 비유했다. 조선족은 입양 간 자식과 같다.

2. 조선족 교회의 유래

만주 땅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선교는 1873년 만주의 목단에서 사역하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결실은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에 의해 세례를 받은 이응찬이었다. 같은 해 로스(John Ross)가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1880년에 이르러 조선인 성경반이 30여 명으로 부흥할 정도로⁵ 만주 지역의 한인 선교는 활



〈존 로스(1842-1915) 선교사〉

발하게 진행되었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백홍준, 서상륜, 김청송 등의 매서인들이 의주, 소래 등의 국내와 만주 집안현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했으며, 그 결과 1882년에 소래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1884년 만주 집안현에도 한인교회가 설립되었다.⁶

초기 만주 땅 한인교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구심점은 민족주의자들이었다. 때문에 당시 만주의 한인교회는 대부분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3월 13일 용정을 중심으로 3만여 명의 한인이 운집하여 독립 만세를 외쳤다. 사람마다 태극기를 휘날렸고 800

호에 달하는 용정 시내의 한인 가옥에는 저마다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이 만세 운동은 만주 땅 전역에서 40일 동안 100여 차례의 집회로 이어졌다. 해방 전 만주 지역의 조선인 교회 교세는 장로교에 6개 노회, 309개 교회, 65명의 목사, 3명의 선교사, 84명의 남 전도사, 20명의 여전도사, 40,500명의 교인이 있었고, 감리교는 만주선교 연합에 52명의 교역자, 4,500명의 교인이 있었다. 그 외에 성결교, 동아기독교, 조선기독교 등이 약간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재중 한인들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하나로 분류되었고, 조선족이라 불렸으며, 교회는 조선족 교회로 불리었다. 하지만 조선족 교회는 구성원이 조선족이었을 뿐 중국 땅에 있는 교회이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조선족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 금지 하였고, 지역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조선족 교회는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 폐쇄되었다가, 개혁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문을 열었다. 1981년 심양에서 서탑교회가, 연길에서 연길교회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1982년에는 중국에 유일한 조선족 신학교인 동북신학원이 문을 열고 신학생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조선족 교회는 큰 발전을 했다. 90년대 말 200만 명의 조선족 중에 약 20만여 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모든 조선족 마을에 하나 이상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교회는 부흥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조선족 마을은 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서 조선족 교회도 쇠퇴하고 있다. 왜냐하

면, 조선족들이 대거 중국 연해 대도시와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상해, 북경, 청도 등의 신흥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조선족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3. 조선족 교회의 북한선교

조선족 교회는 하나님이 중국과 북한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루터기이다. 조선족 교회는 북한선교의 사명이 있다. 특히 북간도와 서간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체로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다. 이들은 상업을 위해 북한에 드나들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다수의 교인이 포함되어있다. 이들 교인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현재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에 있어서 조선족이 여타 선교사들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쉽고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약 80,000명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들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이들이 통일 선교의 접촉점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조선족 교회와 동역한다면 북한선교, 더 나아가 한반도를 평화 통일로 이끄는 데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조선족 교회를 통일 목회의 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김정현 편, 『한국의 첫 선교사』 (대구: 계명대 학교출판부, 1982), 95.

6 만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로스 목사가 1884년 집안현의 한 인촌을 방문하고, 75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만주에서의 첫 한인교회를 설립하였다.

첫째, 현존하는 조선족 교회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신학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바른 신학과 신앙 그리고 인격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후원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각 정통 교단의 대표 신학교에서 각자 실행해도 좋고, 교단을 넘어서 연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신학교(Theological Seminary)의 커리큘럼을 고집하기보다는 중국 상황과 조선족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토착화된 신학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조선족 교회에 바른 신학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교회론적으로 선교적 교회의 당위성을 지원하고, 목회적으로 가정교회의 예배와 양육 시스템을 제공하며, 정치적으로 합당한 교회 구조를 제시하고, 그리고 선교적으로 조선족 가정교회들의 구체적인 선교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셋째, 조선족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중국 현지 노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회가 없이 개교회 중심으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조선족 교회들을 연합하여 “클라우드 노회”를 조직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간섭을 보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넷째, 한국교회는 조선족 교회와 연합하여 북한선교를 실천하고, 조선족 교회가 북한선교에서 통일선교로 사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통일선교를 위한 조선족 교회의 역할과 가치

1980년대 초까지 중국의 조선족은 북한

주민과 비슷한 사상과 사회체제 아래서 살았다. 그들은 비록 중국에 살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생활, 문화, 교육 등 방면에서 북한의 주민들과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2년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이때부터 조선족들의 한국왕래와 정착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73만 명이라는 조선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은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그리고 한국의 왕래를 통해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였다.

따라서 조선족은 남한과 북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 재한 조선족에 대한 통일 목회는 이제는 한국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들이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에 다 같이 익숙하다는 점과 또한 남한과 북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과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재한 조선족을 향한 통일 목회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교회 내에 조선족 성도들을 선교의 대상인 동시에 또한 통일 목회의 동역자로서 인식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에 출석 중인 조선족 성도들은 대부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외되고 있어서 교회의 지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을 위한 소그룹을 운영하여 교회의 각종 사역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족 성도들이 한국인 성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지체임을 확인시켜

야 한다.

둘째, 조선족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 당연히 조선족을 위한 목회자로서는 조선족이 가장 합당하다. 조선족 중에서 목회자와 선교사 후보생을 선발하여 신학교에서 훈련받게 해야 한다. 조선족 목회자나 선교사 등을 양성하는 것은 통일 목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

셋째, 재한 조선족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물론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통일 목회 철학이 뚜렷한 조선족 목회자 혹은 한국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친교 중심의 재한 조선족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정체성이 남과 북의 통일을 간절히 소원하게 만든다. 조선족

성도들은 우리와 동일민족으로서 같은 언어 동일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 두고 있고, 북한과 동일한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하였기에 북한선교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자원이다. 또한, 조선족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후 한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기도 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동시에 경험한 조선족 성도들은 통일선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 교회는 통일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북한 선교, 우리 함께 합시다.

북한선교를 위해 수고한 많은 조선족 동포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제를 맞아 실제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신 엘리야(가명) 선교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여 간단하게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북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다양한 모습의 사역자들이 계시고 각자가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답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수고한 사역자의 의미있는 경험과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 자체가 독자분들께 큰 유익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기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최근 몇 년 전까지 북한을 왕래했습니다. 친척방문을 통해 방문하기도 하고 주로 사업 명목으로 방문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까지도 북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열악하고 고단합니다. 저는 가능한 자주 북한을 방문해서 연결된 친척이나 또는 기업소 사람들을 돕고 교제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적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연결된 각 가정들이 제가 감으로써 가족을 조금이나마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누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면 나아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서민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저는 북한의 민생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들으신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적어도 제가 방문했을 당시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방문하면 꼭 장마당을 들릅니다. 북한의 모든 가정들이 장마당에

나와 생계를 꾸립니다. 집에서 뭐라도 갖고 나와서 팔아야 돈으로 바꾸고 식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전대를 잘 챙겨야 합니다. 꽃제비들이 눈 앞에서 채어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북한을 드나들며 저는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깊은 관계와 신뢰가 제 선교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무턱대고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순리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한번은 북한의 기업소와 관계를 맺고 그 기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업소 직원들에게 조금씩 쌀과 콩기름 등을 지원하면서 도왔습니다. 수년간 그 기업소를 드나들며 직원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그 주변에 어려운 5가정 정도를 찾아 추가로 도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도울 수 없었기에 믿을만한 분께 돈을 맡겨 쌀과 기름을 각 가정에 나눠주었습니다. 사실 돈을 맡기면서도 제대로 구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착복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점을 우연찮은 기회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도운 돈을 동네 상점에 미리 쌀값으로 지불하여 구제 대상 가족들이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는데 상점 주인이 돈만 받고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거래 목격자의 증언으로 구제 대상 가족들에게 물건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를 통해 제대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북한 서민들은 가난하지만 수수하고 인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도 여느 때와 같이 장마당을 찾았는데 머루다래를 한 컵에 1위안에 파는 시장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태도 영 별로여서 팔릴까 싶은 그것이라도 팔아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할머니의 처지가 눈에 들어와 할머니에게 그 머루 한 컵을 사고 1위안 대신 10위안을 손에 쥐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몇몇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보셨습니다. 어찌보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장사이지만 그 아주머니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위정자들과나 고관대작들은 악한 꾀를 부리지만 서민들은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또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숙소도 중국계 초대소가 아닌 북한 초대소를 꼭 들렀습니다. 20대 청년 직원이 주로 일하는데 그 친구들과 친하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 한 자매는 아버지는 술에 빠져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이 있어 자매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이 딱하여 200위안을 도와주



〈지난 9월 북한 양강도 해산시의 장마당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매일경제)〉

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쌀과 기름 외에도 옷가지나 화장품 등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도우면서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그 자매에게 주변에 3-4명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알려달라고 귀띔했더니 다음 방문 때 그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과 가정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여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써 나의 행실과 말이 그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자신들을 별다른 연고 없이 돕는 이분이 누구인가 궁금해하게 되고, 특별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신을 돕는 이가 신앙인이며, 그 신앙 외에는 이러한 도움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신뢰 쌓기입니다. 그러한 신뢰를 잘 쌓아가는 것이 저의 주요한관심이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주의했던 점 중 하나는 확실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 크게 무언가 해줄 것처럼 약속하고는 정작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신뢰를 잃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갑작스런 필요를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언장담은 했지만 비용적으로, 또 여건상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데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신뢰를 깎아 먹는 일입니다. 또한 동정이나 무시의 태도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도움을 줄 때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특정 요청을 해올 때 가능하면 그것은 채워주고자 애썼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분명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확답해주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괜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물론 북한을 방문한 것이 단순 자선사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단지 공격적으로 사역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현장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데 보통 수년의 왕래가 필요했습니다. 꾸준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다보면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연찮은 기회와 계기를 통해 저의 신앙인

으로써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먼저 질문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조심스럽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심기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전문적인 제자 훈련을 시킨다던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어렵고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간단한 복음의 기초와 사도신경, 주기도문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들에게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셨습니다. 한 번은 방문간에 복음을 전했던 한 가정의 식구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약을 쓴다면 살 수 있는 병이었지만 당장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 필요한 약을 구해볼테니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저는 다음 방문 기회가 빨리 오길 고심초사하며 약을 구하고 간절히 그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음 방문길에 그 가정을 만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은 격려를 얻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영적 필요가 늘면서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 자료를 준비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저는 “나는 지하교회를 모르

다”라고 먼저 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의 성도들과 제대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공동체를 체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눈에 띄는 외부인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모두를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감히 그런 시도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렇지만 북한에 지하교회는 있다”고 답변합니다. 북한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가 가능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사역 초기 친척방문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3명이 팀을 꾸려서 북한에 들어가는데 일행 중 한 분이 그래도 성경책을 가져가야하지 않겠냐고 하시며 몸에 성경 7권 가량을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관에 와보니 검신이 엄격하여 도저히 들이지 않고 지나갈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속으로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막 검신 차레가 돌아오는 찰나에 세관에 전화가 올랐고, 검사관은 한참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우리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계속 길어지자 검사관이 줄을 힐끔 보더니 맨 앞에 있던 저희 일행 중 한 명에게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미 검사를 어느정도 실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행이 바로 성경책을 몸에 숨긴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친척 방문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갑자기 무턱대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 새벽에 중국에서 간 세 명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7일째 되던 날 그 집의 할머니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때가 되었다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할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새벽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미신적인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고마우신 분이려면 믿어야지요”라고 하시며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날이 밝고 일터에 갔다 온 가족들에게도 순차적으로 복음을 조심스레 전했고 그 가정 모두가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약 5일 정도 복음의 기초와 주기도문 등을 가르쳐드리고 숨겨서 가지고 갔던 성경책을 집에 숨겨가며 보실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한 나이든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오랜 기간 조선족 교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수 년이 흐른 뒤 이 자매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북으로 돌아간다면 수 년의 교화소 복역을 감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날수도 있었지만 이 자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북으로 돌아가서 복역을 마친 그 자매는 중국에 나온지 오래되어 가족이 이미 다 흩어졌고 연고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압록강 대교를 오가는 화물트럭의 모습 (연합뉴스)〉

런 가운데 한 가정에서 그 자매를 거두었고, 그 자매를 통해 그 가정이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매가 인근 시골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 십여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귀한 성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중국도 아닌 북한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을 들여 충분히 교제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그저 길을 가는 행인이 서로 교차하는 듯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스치듯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자매가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한 동안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마음의 열정이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동포를 향한 애타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복음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한 때 몇몇 사역자들은 북한 내에 상당히 큰 사업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규

모가 점점 커질수록 북한 기업소나 당국자들의 소위 “숙제”도 점점 커집니다.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물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반 협박성 요구에 애를 먹습니다. 또 큰 사업을 벌리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다 보면 사역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보고와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사역은 쉬워지긴 하지만 한 편으로는 받은 만큼 사역을 크게 벌려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역의 증거도 구해와야 합니다. 모험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현지 선교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조선족이라고는 해도 북한을 왕래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강을 건너서 중국 땅을 밟고 나서야 마음 편히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탈북자를 돕는 사역과 북한 내지를 돕는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탈북자나 북한 내지의 주민이나 같은 북한 사람이고, 사랑으로 도와야 할 이들이지만 북한 당국이 싫어하는 탈북자를 돕는 일을 하면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사역은 열정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북한 선교를 위해 조선족 동포 사역자와 협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 교회나 단체 측에서 짧은 시일에 사역 결과를 내고자 검증되지 않은 일꾼들을,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닌 여러 명

을 섭외하여 사역을 벌리다가 양쪽 모두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뢰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일 추진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소수의 현장사역자와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일을 진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도 처음부터 큰 규모를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현장의 선교사를 어렵게 만들거나 역으로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또 선교를 단순히 어떤 사업 벌리듯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현지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현장 사역자에게 사역에 필요한 경비도 채 충당할 수 없는 수준만 지원하면서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일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구제를 할 때에도 중간에 수고하는 이에게 살림에 보태라고 별도로 좀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 사람이 탄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일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손해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을찌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실한 일꾼을 찾고, 또 그렇게 찾은 일꾼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때 제대로 된 사역이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오랜기간 충성되게 선교를 해온 사역자라면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명

감 없이 외부의 지원이 많이 들어오던 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먼저 마음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남북간에 사람의 왕래가 시작되는 것이 통일의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이 있고 사람과 사람간의 마음이 통할 때 통일이 가까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달갑게 맞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가 반갑게 맞고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를 보면 흔히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오히려 서로 너무 어색하고 서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오해와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 마음에 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조선족 동포가 남과 북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남한 소식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남한의 옷이나 화장품 등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남한이 잘산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남한 제품이 질이 좋아 모두들 좋아합니다. 또 제가 방문하고 경험한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한에서 나눕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것이 마음 통일의 첫걸음



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조선족 동포들이 그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중국 교회와의 협력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국적이나 민족에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조선족이라고 해서 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한족이라도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소망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족보다 한족이 유리한 요소도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선교적 목적으로 오지 않았을까 의심하는데 한족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래에는 한족 기독교인 중에서도 한국어가 능통하고 북한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북중간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중국 한족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기 위해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능숙하게 구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족 출신 사역자

가 활동하는데 언어 문제도 더 이상 큰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족 동포 사역자들이 북한 내에서 선교의 기반을 닦고, 준비된 한족 사역자들이 치고 빠지듯이 사역을 전개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곧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북녘에는 많이 있는데 하루속히 문이 열리고 동포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길을 닦는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함께 노력합시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무엇보다 인상깊었던 부분은 선교사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서 느껴지는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북한을 넘어 한반도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이 오해와 몰이해에서 벗어나 함께 협력한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교회가 될 것이라는 비전과 소망이 북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신앙의 자유를 찾아(20)

●
마리아

“대한민국 만세, 지상 천국 만세!”

대사관에 들어서자마자 터져 나온 나의 고백은 “지상에도 이런 천국이 있는가!” 이었다. 넓은 방에 더위를 쫓기 위한 에어컨 시설은 기본, 춤다면 전기장판을 제공해주었으며 홀라후프나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도 라오스 대사관에서 배웠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고 자부했던 나는 웬만한 20대 친구들에게도 지지 않았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5킬로 정도 몸무게가 불어났다. 매일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원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나는 천국에 왔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우리 팀 9명 모두 대사관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당시 우리 말고도 대사관에 약 서른 명 정도의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우리를 그들이 반겨주었다. 동병상련의 정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두 명씩 식사당번을 정하여 밥을 해먹었는데 결국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 고향 음식을 해먹은 셈이 되었다. 대사관에서 있었던 시간은 나에게 참 귀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기억들이 그때만큼은 다 잊혀지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회가 새로웠다. 일요일이 되자 원래 있던 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나도 함께 드리고 싶다고 하자 흔쾌히 초대해주었다. 중국에서 일할 때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처음이었다. 이 감동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얼마 안 있어 대표기도로 자원했는데, 그때 썼던 대표기도문은 일기에 적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나머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였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오열하듯 끼이끼이 울었던 것 같다. 아직도 그때 불렀던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의 후렴부가 사가 기억에 남는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대사관에 있을 때 그 흔한 치킨을 처음 먹어보았다. 당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대사관 직원들이 어느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에게 치킨을 사다주었다. 맛도 맛있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사러 다녀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었다. 우리끼리 치킨을 뜯으면서 그 새로운 맛에 감탄하고 호들갑을 떨었고 나도 “김정은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 김정은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대접을 받고 호강하는구나”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원래 대사관에서는 항상 정숙해야하지만 그날 우리는 치킨을 처음 맛보고는 흥에 겨워 춤추며 노래를 불렀고, 웬일인지 그런 우리를 선생님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별 말씨는 안하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때가 그동안 광야를 헤쳐온 것처럼 멀고도 험한 길을 거쳐 얻어낸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웃고 울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행 절차가 마무리되어 대사관에 도착한 지 약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되었을 무렵에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내가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서부터 팀이 와서 겨울 대비 새 옷을 나누어주었다. 해가 진 캄캄한 밤중에 나를 포함한 탈북민 몇 명과 대사관 직원 몇 명이 다 같이 공항으로 이동을 하였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는 참 신기했다.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인천에 도착해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을 만나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들을 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가장 먼저는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도 몰랐던 결핵을 발견했다. 나는 그 당시 결핵에 걸리면 죽는 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정원으로 이동하여 1인실에 격리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했다. ‘왜 나는 탈북하고도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결핵은 죽는 병이 아니



〈하나원 제1교육관〉

고 치료를 하면 다 나을 것이라고 위로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서 안심은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단체 활동을 못하고 혼자 격리되는 것이 너무나 서럽고 외로웠다. 내가 지냈던 1인실 복도에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루 세 끼 따듯한 밥과 반찬이 배식되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결핵을 치료하던 때는 행복하지 않고 힘들었던 기억이다. 함께 한국으로 왔던 팀원들은 이미 검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는데 나만 뒤쳐지는 느낌도 들었다.

몇 주의 치료와 조사 이후 마침내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나원에서는 단체생활을 하며 약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 시절은 나에게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나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중국말밖에 모르는 어린 남자아이의 임시보호자 역할을 자원해서 맡았다. 같은 방에서 자면서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를 봐주는 역할이었지만, 은근히 할 일이 많았다. 옷도 세탁해서 입히고 남들 자는 시간에 깨어서 공부를 도와주는 일이 보통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역시 책임감이란 막중한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복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복잡했다.

하나원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종교에 따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 선택하여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았다. 아무래도 탈북하는 과정에서 성경공부를 도와주는 선교사님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주일마다 큰 교회에서 봉사를 와서 좋은 간증과 말씀을 해주시고 또 끝날 때 즈음에는 음식을 나누어주셨다.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마른오징어를 교회 팀이 가져와서 참 기뻐했다. 교회 팀을 통

해 찾고 싶은 사람을 설명하면 그 사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찾아봐주기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중국에 있었을 시절 복송되기 직전에 일했던 회사 부장님과 연락이 닿았다. 그 때 참 놀랍고 반갑고 감사한 만감이 교차했다.

하나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기독교 도우미 책임자 역할을 자원하여 맡았다.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을 대신하여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한 찬양과 율동 연습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다. 내가 책임자를 맡은 이후로 찬양과 율동이 아주 잘 연습되어 있다며 목사님이 감탄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 같아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공교롭게도 내가 교화소에 있었을 때 총을 들고 나를 지켰던 여자 초병이 하나원에서 같은 기수로 들어와 있었다. 그 친구는 나이가 어린 아가씨였는데, 그 친구를 처음 알아보았을 때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교화소에서는 군인과 죄수의 입장에서 내가 도주라도 하면 총을 겨누었을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원에서는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참 이상했다. 그 친구는 예쁘장하면서도 생긴 내성적인 친구였다. 내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야 너 교화소에서 초병하지 않았어?”하고 묻자 매우 쑥스러워하였고, 이후로 나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친구가 교화소 초병을 했었다는 이유로 왠지 불편해하며 잘 끼워주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위축되고 경직되는 것 같았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 또한 이



〈열병식에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북한 여군들 (RFA)〉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교화소에서 이 친구와 같은 군인들로부터 인권도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따듯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한 이후로 나는 이 친구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다. ‘이 친구는 그저 그 당시에 군복무를 했었을 뿐이고 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마음도 들었다. 마냥 서로를 피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여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기독교 도우미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중국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는 친구였다. 그 친구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부터 토요일마다 함께 연습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기타와 같은 악기 연주도 곧잘 했다. 이 친구가 기독교 도우미가 된 이후부터 활발하게 하나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라오스 대사관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 이후 국정원을 거쳐 이렇게 하나원 생활을 하는 기간은 나에게 꿈만 같았다. 회복이 있었으며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비로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웠던 신앙의 공동체에 온전하게 속하여 그 첫 뿌리를 잘 내리도록 이끄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린다. 

+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맞아 유례없는 '심야 열병식' 개최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을 열었다.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연설 간에 미국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동시에 남측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또 주민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면서 '삼중고' 속에서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다잡는 모습도 보였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자정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열고 신형 ICBM과 '북극성-4호' SLBM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등도 실물을 공개했다.

이들 전술 무기는 종전에는 발사 사실이나 사진으로만 공개된 것으로, 영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신형 ICBM은 11축 22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려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번 열병식이 대미 무력시위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남한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라고 지칭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는 북한 내부 민심을 다독이고자 하는 모습도 두드러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경제 제재, 코로나 방역,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를 지칭하며 북한이 겪은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해 복구와 방역 등에 동원된 장병들과 전체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도 드러냈다. 특히 연설 중간에 울먹이며 "너무도 미안하고 영광의 밤에 그들(장병)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올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을 고려해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오전 10시를 전후해 열렸던 열병식이 이번에는 자정에 개최된 배경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특색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심야에 환한 조명을 활용해 김일성광장을 밝히고 군부대가 도열하는 모습이 이색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공무원 피살 책임 규명·보상해야"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10월 23일 75차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된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는 10월 15일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 책임자인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경계병의 생명에 어떤 위급한 위협 행위도 보이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피살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 측에 사건 관련 정보 공개 및 책임자 문책, 유가족 배상과 무단침입자에 대한 방침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키타나 보고관은 "한국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12월경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번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다.

해양수산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 어업지도 관리단 공무원 이 모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실종되었다. 실종 당일 해경과 해군 함정, 해양수산부 등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를 수색에 투입했지만 이 씨를 찾지 못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22일 오후 3시 30분 경 황해남도 등 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밤 10시 11분 경 총격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하여 청와대와 국방부, 정치권은 북한의 비무장 민간인 피살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하였다. 북한 측에서는 이래적으로 9월 25일 전통문을 보내 사건경위 설명과 함께 "미안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유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상당부분 의문인 가운데 북한의 과잉 대응 논란, 공무원 월북 여부, 정부 조치의 적절성 여부, 피살 공무원의 시신 수색 및 이와 관련된 영해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져왔다. 🐟

+ 중국 잔류 북 노동자 수만명...실직자 생활고 심각



〈중국 단둥시 외곽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노동자 합숙소 (RFA)〉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북한 노동자들이 아직도 중국 노동현장에 남아 외화벌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월 22일 중국 단둥발로, 올해 1월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남아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전세계 각국의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홈페이지의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일곱 달이 지나도록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을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중국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수많은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지만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먹을 것조차 없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0월 15일, 북한이 이달부터 남포나 청진 등 3개 항구에서 화물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중국 연변과 훈춘에서는 열흘 간의 격리를 조건으로 한 때는 하루에 북한 노동자가 200명 가량 중국으로 입국하는 등 북중 양국이 국경 봉쇄를 풀고 대외 경제 교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참고: RFA, 10월 22일) 🐼

+ 북한 결핵 발생률 세계 5위...WHO '결핵 고부담국가'로 재분류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평양에 위치한 국가결핵표준실험실의 병실 침상에 앉아 있다. (AP)〉

북한이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이 많은 국가로 꼽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0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결핵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13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레소토(645명), 남아프리카공화국(615명), 필리핀(554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540명)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다.

전 세계 평균 발생률이 130명이며, 고부담(high TB burden) 30개국 평균 발생률은 177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결핵 환자 수는 작년 기준 총 13만2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중증결핵인 다제내성결핵(MDR-TB) 환자는 5천200명이었다. 다제내성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20명이었다.

WHO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결핵 발생률이 높은 상위 30개국을 고부담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고부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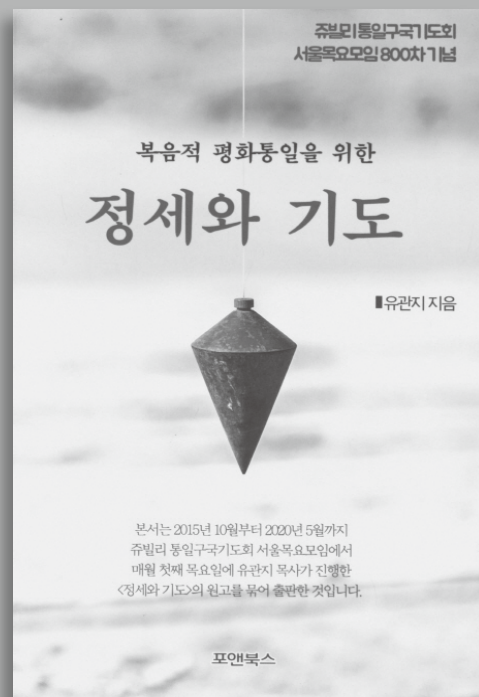
가로 분류됐다.

결핵은 보균자가 기침할 경우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전염된다. 특히 영양결핍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결핵에 걸리기가 쉽다.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48%로, 고부담 30개국 가운데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60%), 짐바브웨(51%)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결핵 전파 위험이 더 커지기 쉬운 셈이다. 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결핵 진단과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WHO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최근 결핵 부담 감소 추세를 위협하고 있다"며 "2020년에만 전세계적으로 결핵 사망자 수가 20만~40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고: 연합뉴스, 10월 15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세와 기도

저자: 유관지

출판사: 포앤북스

발행일: 2020년 6월 6일

가격: 12,000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에 대응하는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기도”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야말로 적극적인 대응이다. 한반도의 통일, 북한 선교 등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한 이슈들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이슈인 것이 분명하다. 나라의 가장 명석한 엘리트들과 정치적 수완가들도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감사와 위안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하려고 한다면 까마득한 어둠과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난제이지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속 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여 기도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아무래도 들인 시간과 노력의 양이라 말로 얼마나 마음을 다해 기도에 전념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도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일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지의 여부는 기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치적, 사상적으로 왜곡되게 바라보기 쉬운 통일 문제, 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홀로 기도하기 보다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활용하고 공동체 및 사역자와 함

께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세와 기도”이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서울 목요일모임에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유관지 목사가 진행한 <정세와 기도>의 원고를 묶어 출간한 책이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오랜 기간 여러 사역 단체와 성도들이 함께해온 기도모임이다. 특별히 이번 책은 서울 기도모임 800차 기념으로 발간되었는데, 단순 계산을 해 보아도 했수로 15년 이상 기도가 계속되어 온 셈이다.

이 책을 읽기 전 제목만 보았을 때는 그저 과거 기도제목의 목록이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기존에도 기도제목을 엮어서 30일 또는 52주 등 다양한 형태로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돕는 책은 간간히 있었으니 그와 비슷한 형식의 책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책자를 펼쳐보니 기대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먼저 “정세와 기도”라는 책 제목과 같이 각 시기마다 통일 및 북한 관련 주요한 이벤트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며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민생이나 통일 선교에 관한 내용들, 또 북핵 교회의 역사 소개 및 박해받는 북한 교회에 대한 내용 등 기도에 도움이 될 의미있는 내용들을 시기에 맞춰 소개하였다. 또 지난 5년간 있었던 굵직한 이벤트들에 맞춰 그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도제목도 잘 정리가 되어있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북한의 핵실험에서 북미 및 남북 정상회담, 평창 올림픽,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 다사다난한 이슈들을 다시금 회상해볼 수 있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이러한 내용과 이슈들이

정치적으로 치우친 서술이나 단순한 소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와 통일 선교 관점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지만 그 중에는 조희수를 위해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자극적인 멘트로 꾸며놓은 것들이 많아 정작 실제적인 도움 보다는 정신적인 피곤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 속에서 이 책의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 여러 이슈들을 교회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또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책 자체는 과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통일 및 북한 관련 이슈들 중 상당수가 반복되거나 이면의 쟁점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책을 덮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오랜 기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온 기도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도 함께 그 중 한 명으로서 서서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겠다는, 기도의 동기가 새롭게 되는 감동이 있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후 4:20),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많은 지식과 훌륭한 연변이 아닌 기도라는 실천을 통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성벽 위의 파수꾼과 같은(사 62:6)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는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번에 소개한 “정세와 기도”를 기도에 힘을 보탬 책으로 추천해본다. ☺

1.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열병식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됩니다. 제제와 코로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적 상황은 불투명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는 애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나 남한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신형 ICBM을 등장시키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조하는 등 압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미 대선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고 인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조선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선족 교회와 성도들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지역 조선족 인구 감소와 당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원 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간된 신앙 서적이나 자료도 사용을 금지당하고 북한 동포와 관련된 사역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국경 인근 시골 지역의 소교회들은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교회들도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선족 교회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가능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국경을 걸어잠그고 있지만 조금씩 국경이 열릴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기대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왕래 중에 복음을 전해 받을 북한 사람들의 마음발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북한 여성들, 그리고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4.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박해 중단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북한 교회의 핍박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5.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라디오 사역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여러 모임과 행사에 제약이 걸리는 가운데 자칫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며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제약이 있을 지라도 통일과 민족 복음화의 소망은 더 크게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적 평화통일의 소망의 비전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올 기회를 기대하며 북한선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11월 1일

월드와이드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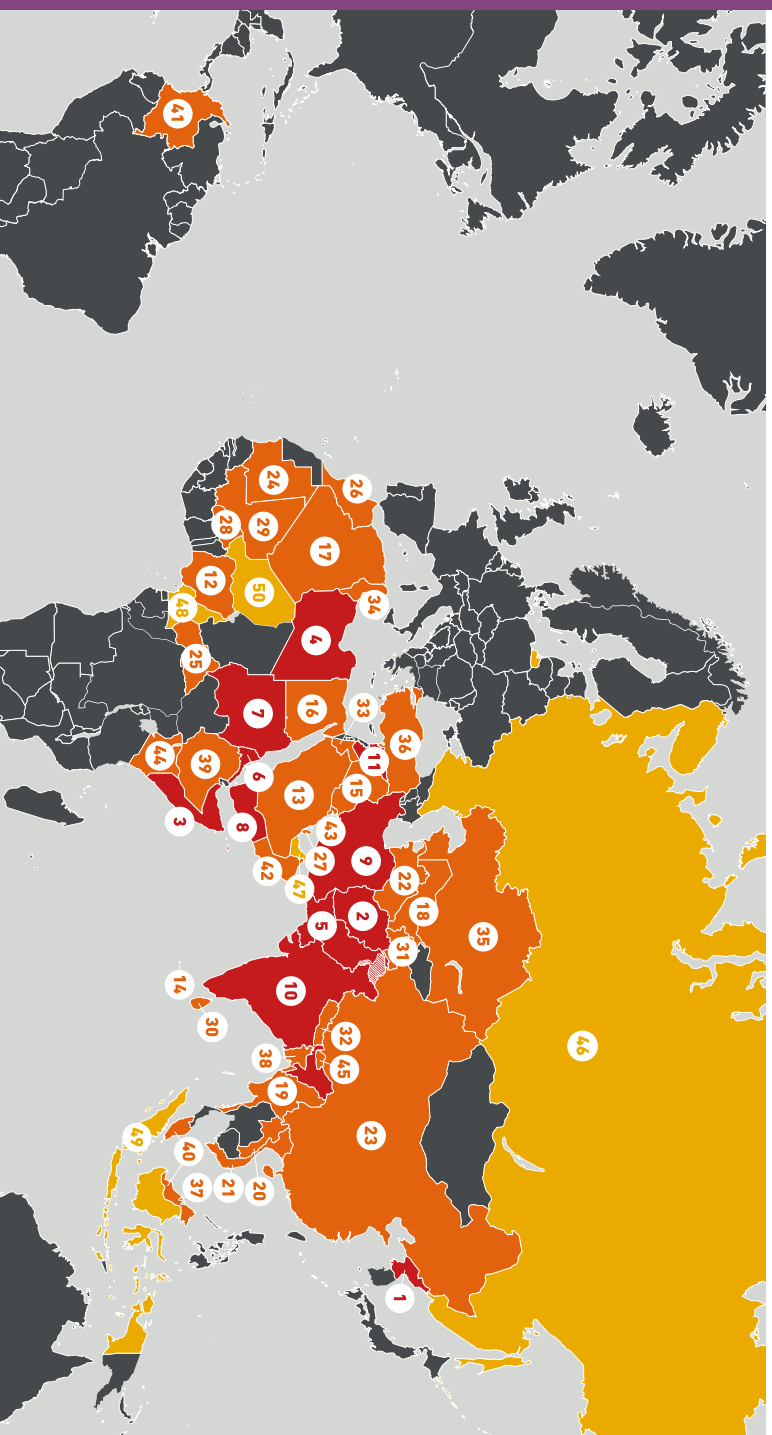
1	북한	28	모로코
2	아프가니스탄	29	카타르
3	소말리아	30	부르키나파소
4	러비아	31	말리
5	파프스탄	32	소리랑키
6	에스와티아	33	타지키스탄
7	수단	34	네덜
8	에티	35	오만
9	이란	36	튀니지
10	인도	37	카자흐스탄
11	시리아	38	터키
12	나이지리아	39	브루나이
13	사우디아라비아	40	방글라데시
14	콜라트	41	아티모시아
15	이라크	42	말레이시아
16	아랍	43	팔레스타인
17	알제리	44	요안
18	우즈베키스탄	45	쿠웨이트
19	미얀마	46	케냐
20	라오스	47	리비아
21	베트남	48	라이베리아
22	투르크메니스탄	49	아랍에미리트(UAE)
23	중국	50	카메룬
24	모리타니아	51	니제르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속 1

● 극단적인 수준의 배려 ● 매우 높은 수준의 배려 ● 높은 수준의 배려

오펜도어 헬도버저만 스스로는 크리스스인 배려가 가장 심한 쪽에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복고'라고도 총칭하지만, 사회학자이자 저자인 그는 오펜도어 반세기들이 뒤에 국가의 정책으로 복고로운 크리스스인 배려를 만들어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배려가 오펜도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크리스스인의 의욕이 떨어진다. 이것은 복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스인들이 개인과 정부와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하나의 자유롭게 인정받을 열 할 자라고도 지적을 행하는 것이다.

오른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J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크리스천회는 교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메쉬는 스티븐가바르칼로아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거실폭탄테러범이 시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티는 말합니다.

“시간이 발전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지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찬태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시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황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